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Tag: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13:13)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구는 아니다.

우리는 식물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식물이 아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닌 동물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고, 중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흙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사람은 지구 친화적이지 않다.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지구를 정복하였고, 정복해 가고 있으며, 다스려가고 있다. 그리고 땅에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매우 답답하고, 지루하고, 잔인하기까지하며, 무모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다.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심지어 레밍스 게임을 보는 것 같기도하고, 슈퍼베드의 미니언즈들의 행동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갖혀있는 꼴이다. 왜냐면 하나님께도 자유의지가 있으시고, 그것은 전체 인간들의 자유의지의 합 보다 더 강하시니까. (인간들은 절대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

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증거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는 지구 안에서는 발견하기 힘들고, 오직 지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중이다.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바라볼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 오직 지구만 독특하고 화려하게 빛난다. 우주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는 너무 작고 초라한 행성인데, 사실 전체 우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구다. 지구의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이고, 초정밀 생태환경이다.

우주 속에 지구는 실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나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간은 지구보다 고귀하다.

물론 크기로 본다면 인간은 아직까지도 지구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볼 수 없다.(ing) 아직 표피만(지하 몇 미터까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평평한 곳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에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모든 생물들보다 훨씬 잘 번성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지구는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행성도 아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과연 인간이 이처럼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는다. 기적이다.

인간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한 기초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이기 때문이다.

예부터 네덜란드는 도시국가들의 집합체 였다. 네덜란드의 지리적, 정치적 특성상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고, 다행스럽게 왕들과 교황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신앙을 찾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1300년대에는 공동생활 형제단을 중심으로 뜨거운 신앙운동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은 토마스 아캄피스(그리스도를 본 받아)가 있다.

이들은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 당시의 카톨릭에 저항해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한 운동을 하였다.

이 형제단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하였는데, ‘에라스무스’다.

그는 여러곳에서 공부하였고,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출판하였는데, 라틴어와 주석을 덧붙여서 출판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기초적 진리를 제공하는 큰 공을 세웠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이 낳은 알(종교개혁)을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루터와는 ‘자유 의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고, 인간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 루터는 신의 예정론을 더 중요시 하였다.

에라스무스(1466~1536)는 관용을 사유의 중심에 놓은 사상가로 알려졌다.

에라스무스의 이런 사상은 네덜란드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

도시국가들은 서로 신뢰하고, 스스로는 자유롭게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이 점이 카톨릭 세계관에서는 이루어내기 힘든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일구어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당시 박해 받던 유대인들, 개신교인들이 네덜란드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일구어 낸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 80년 동안 독립을 위해 싸웠다.

독립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종교박해를 피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보장되었기에 당시 유럽에서 자유와 관용의 나라로 통했다.

네덜란드가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이 꽃을 피웠던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왜 중요한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개신교국가에서 꽃을 피웠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공격을 받아왔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이들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 실체는 매우 훌륭하다. 다만 아쉬운 한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은 이렇다.

1. 이익추구
2. 자유시장 공정한 진입과 경쟁
3. 강력한 재산권과 계약 이행
4. 정부의 계획, 통제, 가격설정의 부재
5. 대부분의 것들이 민간 소유, 자발적인 교환

비판하는 자들의 주장;자본주의는 이기적이다. 그렇다, 단연코 이기적이다.

그러나 스미스(국부론);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동료 시민들의 자비심에 주로 의지하는 쪽을 택할 사람은 거지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탐욕스런 사람들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전체 사회에 이익을 높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풀어 놓고 선과 악이 싸우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

-결국 악이 정권을 잡고 세상을 이리 저리 휘두르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체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이기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딤편6:10)

그러나 자본주의자들이 이기심에 빠질 때는 악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편6:10)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생산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혁신을 가져온 제도인가?

-자본주의, 해방과 동의어인가, 착취와 동의어인가?

*자본주의가 가능하게 된 기본 토양은 무엇인가?

-구교, 율법주의, 강하고 악한 자들로부터의 해방

-교리적, 교조적, 신성불가침영역으로부터의 해방(왕권, 황제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이런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진정한 학문, 과학, 지성, 자유의지,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토대.

-믿음;서로 신뢰할 때 거래는 이루어진다. 신용이 곧 돈. 자본주의는 신용주의.

-소망;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소망. 주식투자로 이어짐. (후에는 소망이 탐욕으로 번져서 튜립 투자를 하다 망하게 됨)

-자본주의의 정의;믿음과 소망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네덜란드가 이것을 잃을 때 부흥도 막을 내렸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랑까지 잘 간직하여 부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지구 착취의 정점, 그 이후

성경: 마태복음 24장 4-14절

Tag: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4-14)

신앙강좌

‘포스트 피크 거대한 역전의 시작’;지구 착취의 정점, 그 이후
저자;앤드루 맥아피 (Andrew McAfee)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 슬론경영대학원 부교수이자 MIT 디지털 비즈니스센터 수석연구원이다.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
하버드대학에서 기술과 운영관리학 박사
하버드경영대학원 부교수와
하버드 로스쿨 버크먼인터넷 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MIT에서 정보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해 연구

1장;멜서스 시대;지구를 뒤덮은 인류

인류의 공포들.

인구폭발(1870년)

식량고갈(1970)

자원고갈(희토류)

화석연료;석탄고갈,석유고갈(1970) 2000년이면 석유는 고갈됨.

우라늄고갈 (60년~16000년;기술개발 이후)

스모그(1985년에는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50% 줄 것이다.)

황사(2012;10년 안에 모든 도시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이다.)

물부족

온난화 (97% 학자들 동의;무응답이 60%-다분히 디스토피아 공포 효과)

탄소중립과 해염

빙하시대(간빙기)

2장;인류가 지구를 정복한 산업시대

-그래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0억 인구 도달에 20만년,

-20억 인구 도달에 125년

-30억 인구 도달에 31, 40억은 15, 50억은 12, 60억은 11년...

동물의 무게;인류가 1등(코끼리, 버팔로, 고래등이 우위였음)

버팔로, 여행비둘기는 멸종상태

3장;산업시대가 만들어낸 오류

-노예해방, 어린이 노동 금지

-땅에 대한 탐욕 금지

-자원 고갈

4장;지구의 날과 그 논쟁에 대하여

-1970년 4월22일 (상원의원 게이로 닐스, 하버드대생 데니스 헤이즈 주도) 1년 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에서 있었던 기름유출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환경운동.

-환경론자들의 비관적 예측은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사이먼과 얼리치의 내기. 10년간 구리, 크롬, 니켈, 주석, 텅스텐의 가격. 내리면 얼리치가 오르면 사이먼이 차액을 지불기로 함. 사이먼이 이김.

-사람들은 값이 오르면 대안을 찾는다.

-중국. 희토류 사건.

-희토류;거의 중국이 독점. 희토류는 희귀하지 않다. 다만 추출이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다만 그동안 희토류가 값이 쯤 때문일 뿐)

(2010년 1만 달러 하던 중국 자석이 2011년 4만2000달러, 2017년에는 1000달러)

5장;탈 물질화의 놀라운 업적

6장;CRIB 보완 설명

덜쓰고, 재활용하고, 제약을 가하고, 귀농하자.

-인류의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잘 알려진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다.

산뜻하고 그럴 듯하면서 틀린 해결책이다.

-귀농은 환경에 좋지 않다. 소규모 농작은 효율이 떨어진다. 더 소비적 작농, 덜 환경친화적인 생활, 지구를 위해서라면 고층건물을 더 지어라.

7장;탈물질화의 원인,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

-경제는 더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자원을 점점 더 덜 사용하고, 덜 소비하고 있다. (종이,철강, 비료 등) 분명히 이것은 완전히 예측 역행 현상.

-종이는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 플라스틱은 점점 이전임(확실히 줄기는 했지만, 아직 정점을 찍지는 못함)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음.(LPG 때문)

*탈물질화는 CRIB덕분일까?

-자본주의와 기술발전이 추진력을 제공함.

-미국의 농지는 25% 감소, 비료 사용량 감소. 그러나 생산량은 35% 증가.

-젓소는60% 감소, 생산량은 40% 증가.

-철캔은 생산 중단. 알미늄 캔의 무게는 85g에서 현재 9.5g으로 줄어들음.

-아이폰 속으로 사라진 전자제품들;계산기, 캠코더, 시계, 라디오, 휴대전화, 녹음기, 나침반, 카메라, 기압계, 고도계, 가속도계, GPS장치, 지도책, CD, 등...

-세일가스 때문에 석탄정점이 먼저 다가왔다. 36% 감소.

-석유의 정점은 아마 2028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더 많은 자원을 원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철도 지원을 중단하자, 회사들은 비용절감 경쟁에 뛰어 들었고, 이것은 곧 탈물질화를 제촉했다.

-회사는 덜쓰고, 대체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성(탑승률)을 높이고, 아예 없애자.(스마트폰)

8장; 자본주의에 대해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생산 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해방과 동의어인가, 착취와 동의어인가?

-자본주의의 정의; 믿음과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익추구, but 자유시장 공정한 진입과 경쟁, 강력한 재산권과 계약 이행, 정부의 계획- 통제- 가격설정의 부재, 대부분의 것들이 민간 소유, 자발적인 교환

-자본주의는 이기적이다. 그렇다, 단연코 이기적이다.

그러나 스미스(국부론);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

죽간, 양조업자,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동료 시민들의 자비심에 주로 의지하는 쪽을 택할 사람은 거지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이기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딤편6:10)

9장;대중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

10장;네 기수의 세계 질주

*기술발전, 자본주의, 대중의 인식, 반응하는 정부(낙관주의의 네 기수)

-계시록의 네 기수 (전쟁, 역병-땅의 짐승들, 기근, 죽음)

11장;훨씬 더 나아지다

12장;집중의 힘

13장;유대감의 약화가 불러온 단절

14장;미래 예측 (탈물질화)

3D 프린팅이 제조업에 도입될 것이다.

새로운 물질 제조; 단백질의 접힘 문제를 해결하고 거미줄 강도의 물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핵융합

효율적 교통. 차량의 대부분은 놀고 있고, 일하더라도 빈자리가 많다.

스마트농법,

15장;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결론;우리의 다음 행성

정복이란, 착취가 아니라, 보살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듯이.